

인천 서구 그린벨트 불법 만연 ... 공촌천 오염 우려

임대업자, 개발제한지 아스콘 매립·자동차 폐기물 방류 ... 하천유입 가능성
서구 "현장 확인 ... 토지 소유주에 원상복구 지시"

2015년 07월 20일 월요일



▲ 지난 14일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 일부 업체가 아스콘 등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뒤 폐차를 방치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그린벨트에서 형질 변경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 인근 하천의 수질 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서구 연희동 인근 400여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부지 곳곳에 가설 건축물이 세워져있다.

확인 결과, 노후된 화물차량을 수출하기 전 낡은 부품을 교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라는 점이다.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건축과 물건 적치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는데도 이 곳을 불법으로 임대한 업자가 아스콘 등 폐기물로 바닥을 모두 메워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성토를 하고 형질을 변경한 셈이다.

그린벨트 곳곳에 자동차 부품이 널브러져 있고, 자동차를 해체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새어나온 부동액과 폐기름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 같은 불법 매립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그린벨트에 인접해있는 공촌천과 농경지 때문이다.

폐기름과 부동액 등으로 인해 공촌천의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쓰다 버려진 드럼통과 쓰레기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하천 뿐만 아니라 농경지도 위치해 있어 인근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자 인천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공촌천 네트워크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매립과 건축과 관련해 관할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중선 인천청소년그린봉사단장은 "단속을 하지 않는 사이 최근 2~3년 동안 가설 건축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폐기물 투기도 동시에 급증했다"며 "하천이 오염되고, 공원 부지가 불법으로 훼손되는데도 지도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토지 소유주에 대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희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